

농어촌公 경주시사, 2026년 을지훈련 연계 민방위 훈련 실시

[석경혜]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 점검

[국제i저널=경북 석경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는 지난 8월 20일 경주시사 청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 2026년 을지훈련 연계 민방위 훈련 ©국제아이저널

이번 훈련은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민방위 대원 반별 임무를 확인하고 숙지함으로써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2시 정각에 발령된 훈련 공습경보에 따라 지사 직원들은 안내요원의 통제 아래 대피로를 따라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해 훈련을 마무리했다.

박기철 지사장은 "실제와 같은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경혜 기자 ijj@ijj.co.kr